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
2023년 12월 (전체회의)
(速記録)

- 주관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 일시 : 2023. 12. 19.(화) 14:30 ~ 16:00
- 장소 : 문화본부 4층 대회의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0, 센터프라자 808호

Tel) 02-537-0889 Fax) 02-738-0123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 2023년 12월 (전체위원회)

◆ 일시 : 2023. 12. 19.(화) 14:30 ~ 16:00

◆ 장소 : 문화본부 4층 회의실

◆ 참석자 : 무형문화재분과 위원 15인

위원장 : 000

위 원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배석자 : 000 과장, 000 팀장, 000 주무관, 조사위원,
000 시의원

◆ 심의사항

- 「백동장」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지정 여부 심의
- 「색실누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지정 여부 심의

◆ 검토사항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39호 「아쟁산조」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검토
- 기능종목 보유자 공모 관련 검토

◆ 보고사항

- 2023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시험 평가 결과 보고
- 2023년 하반기 전수장학생 선정·해지 보고

(개회)

○ 000 팀장

안녕하세요? 문화재정책과 문화재정책팀장 000입니다.

(장내 박수)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3/K121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2/45



오늘 위원님들이 다 오셔서 위원회를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위원회 시작 전에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000 시의원님이 참가하셨습니다. 저희 무형문화재 정책에 워낙 관심이 많으신 시의원님이어서 오늘 이렇게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 000 위원장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무형문화재위원회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 000 시의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56호 결선택견 승인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침 오늘 결선택견 진흥 조례를 저희 상임위에서 가결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지원과 도움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 2023년 12월 전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은 심의·의결 시 미리 배부해 드린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신 위원께서는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제척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9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피 신청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9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와 관련해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할 위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검토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기피 신청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자료에서 심의사항으로 먼저 백동장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것과 색실누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심의사항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동장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지정 여부 심의

□ <백동장>

○ 000 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동장 신규 종목지정 신청은 올해 3월에 조성준님께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셨고요. 7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청내용은 구리와 니켈 합금인 백동을 소재로 한 수공예품이고요. 백동 제품은 비교적 근대기에 많이 등장했던 수공예품이라고 합니다.

다른 구리 합금과 비교해서 연성이 다소 떨어지고 단단해서 성형에 필요한 기술이 다른 금속보다 훨씬 어렵고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맞춤형 도구 등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참고로 신청인은 1999년도에 대한민국 명장 증서를 수여받았고 수차례 전승공예대전에서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세 분의 검토위원께서 7월부터 11월까지 검토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백동 기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공 난이도가 높아서 정확한 도구라든지 제작자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분 다 종목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직접 조사해 주신 000 위원님께서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조사위원 입장)

○ 000 조사위원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000입니다. 제가 백동장 조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3/K121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4/45



사를 000 교수님하고 000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일단 백동이라는 것 자체가 구리와 니켈 합금제로 일단 기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려시대 때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부터 확인이 됩니다. 학계에서는 백동 자체를 그 시대부터 사용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신화선에서의 출수품 등을 통해서 주석이 많이 함유된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견해들이 나뉘고 있는데 현재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태라서 이 견해들이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선시대에는 특히 조선 후기에 생활기물로 많이 사용되었던 촛대라든지 화로라든지 아니면 장신구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규경의 '오주서종박물고변'이나 아니면 '오주연문장전산고' 같은 곳에서 관련 합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000 선생님께서 이 전에 연구하신 바에 따르면 구리의 기록에는 '비'라고 해서 비소나 비상을 합금해서 아마 이 백동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연구성과에서 조금 현재의 니켈 합금과 연결되는 부분은 거기에서 사용되었던 비소라든지 비상에 소량의 니켈이 성분분석 결과 함유가 되어 있어서 백색 빛을 내고 있고 근대기에 교류를 통해서 니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백동이 본격화된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셨습니다. 현재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백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백동으로 기물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오동상감이라고 해서 흑색 빛을 띠는 구리에 입사를 시켜서 뭔가 대비 효과를 내는 촛대라든지 화로 같은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조선 후기에 연초 문화가 유행을 했는데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백동연죽장의 주요기술 중의 하나였고 그 백동 니켈 합금이 그때부터 이어져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백동연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백동연죽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낙죽과 또 연결이 되어서 그 기록들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조사인께서는 따로 계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1980년대부터 조사인께서 독학으로 해서 백동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조사와 그것에 대한 기물 제작 등 작품활동을 진행하셨는데 니켈 25%에 구리 75%로 해서 합금을 해야 하는데 일단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주거하신 공방 상황상 현재 합금은 어려운 상태지만 저희가 봤을 때 높이 평가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시고요. 성형기술하고 선각, 어자문, 입사 등 모든 세공기술들을 백동으로 해서, 백동이 다른 것보다 니켈로 인해서 강도가 굉장히 단단한 편



인데 그 모든 것을 하고 계시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전승을 받지 않으셨지만 독학을 통해서 도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도구들 자체가 전통도구들, 활비비라든지 줄이라든지 정, 작두 등 모든 것들을 본인이 연구를 하셔서 백동이라는 특성 상 어떻게 보면 단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공하고 마연하고 어떨 때 정을 새기거나 할 때 도구가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전통도구에 결합을 시켜서 굉장히 많은 수의 도구들을 활용하고 계신데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고 사용하시는 것을 봤을 때 기본적인 전통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작업을 위해서 용이하게 바꾼, 그래서 백동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쨌든 조선후기부터 이어져서 현재까지 이어진 상태인데 백동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유기나 주석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조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했을 때 이 선생님께서 각종 백동기물 등의 복원을 같이 하시고 제작도 같이 하는 점에 있어서 문화재의 의의라든지 지정 가치가 있을 만한 요건을 충족하셨는데요. 다만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뭐였느냐면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금을 하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합금재를 받아오시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소략해서 가공하시는데 그 공방 자체가 서울시내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어서 공방에서 합금을 하면 냄새부터 시작해서 가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일단 우려스러웠고요. 실제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나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동 관련한 선생님들, 백동연죽장이나 주석장이나 유기장 모두 합금을 하고 계신데 그 점에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전승 관련한 건데 현재 일단 이 종목 자체는 문화재적 중요성이나 전승 측면에서는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고령이시고요. 그리고 백동보다는 다른 유기 등이 판매가 훨씬 많이 되다 보니까 백동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정되었을 경우에 전승을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셨고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지정이 되신다고 하면 전승 부분에 있어서 일단 홍보나 지원이 필요하신 상황이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출강을 활발하게 하셔서 그러한 기반이 됐는데 현재는 고령이시라서 그것을 조금 축소하신 상태라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백동장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승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전통성을 연결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선생님께서 복원한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어떤 면으로 평가할 것인지. 일단 이 선생님께서는 혼자 기존에 금속공예를 계속 하시면서 백동이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본인이 작품을 만들고 월정사 탑의 금속 부품 복원작업에 참여하시는 등으로 하시기는 했는데 전승계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복원 측면에 놓고 지정을 해야 할지. 그런 것에 있어서 몇 가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000 선생님께서 전공이시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 000 위원

저도 자료를 봤는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분 전시할 때도 직접 가서 작품도 둘러보고 같이 인터뷰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려사항 두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약간 제가 옹호를 하는 것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합금 얘기를 하셨는데 합금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조그만 공방을 운영하면서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니켈은 용융점이 굉장히 높은 금속입니다. 거의 1,500°C 가까이 가거든요. 그러면 거의 2천°C 가까이 올라가는 용해로를 갖춘 설비와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것을 압연해서 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톤수를 가진 압연기까지 갖추고 이러다 보면 웬만한 공장 하나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조금 가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이분은 전문적인 기술, 백동을 가지고 뭔가 표현해내는 기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부분이 우리가 인정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승의 계보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백동장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후기라든지 일제강점기라든지 6·25동란이라든지 또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동과 관련된 재료 수급 같은 문제. 그리고 만드는 게 장신구 이런 게 아니고 기물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화로, 그다음에 백동대야, 솥대 이런 것들이 공제산업으로 바뀌면서 수공으로 만드는 게 수요가 거의 없어서 버렸습니



다. 그러다 보니까 계보가 이어질 리도 없고 하던 사람들도 다 와해돼버리고 거의 없어진 상태인데, 이분이 관심이 많으셔서 1980년대 초반부터 거의 독학하다시피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을 굉장히 많이 관찰하시고 자료도 보시고 해서 직접 도구까지 다 만드셔서, 어떻게 보면 사라진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었다는 데 저는 감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옛날과 과연 똑같은가?’ 이렇게 따지면 물론 그것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하신 게 전승의 어려움. 사실 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이 재료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가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재료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라도 뭘 했을 때 이게 뭔가 수요도 있고 생활기반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거기에 뒷받침을 하지 않다 보니까 배우고 싶은 학생들도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이분께서 대학 강의도 오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이 분야가 처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령이시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이 백동장 부분을 어떻게든 지정해서 살리면 어떻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예. 김 위원께서 금속공예를 전공하시고 직접 만나보셨으니까 소회를 말씀하셨는데, 공예 쪽에서 000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 000 위원

제가 금속공예는 아니라서 그렇기는 한데, 지금 합금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는 가지만 국가 주석장은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물론 오래 전에 되셨기 때문에 수요도 많고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제일 주안점은 복원은 복원이에요. 왜냐면 얼마나 잘 복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승이 단절된 것은 맞고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이만큼 복원하신 것은 저도 인정이 되는데 그것을 얼마나 잘 복원해냈는지는 조사위원들이 다 보기는 보셨지만 저는



눈으로 보지 못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담보가 된다면 구한말에서 20세기 전반에 굉장히 유행한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단절되다시피 했잖아요. 그 시대를 풍미했던 것은 맞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단절이 돼서 더 이상 이어지지 못 한다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목은 누가 댔든 간에, 지금은 저분이 신청을 하였지만 누가 댔든 간에 지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분명 되실 테니까 그렇게 되면 기록화라도 해놔야지 다음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분이 되신다 해도 바로 밑에 한 분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욕심 같아서는 제대로 복원은 됐는지 그 정도만 한 번 더 조사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조사위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 같으면 종목 지정을 하고 전승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 000 위원

연세가 어떻게 되죠?

○ 000 조사위원

78세입니다.

○ 000 위원

저도 지정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종목이라도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동 함금이 세 가지 종류잖아요. 구리에 주석, 아연, 니켈을 섞는 건데 이게 하나가 빠졌어요. 이게 들어가면 완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대안이 없이 이분 혼자 있다.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시면 그나마도 끊길 것 아니에요. 어떻게 했는지조차도 이분이 평생을 거쳐서 해왔던 작업인데 이 성과가 고스란히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아깝고요. 그다음에 계보나 전승체계가 예전에는 계보가 없으면 아예 엄두를 못 냈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문화재청조차도. 사실 따지고 보면 옥장 있잖아요, 장종훈 선생님 같은 분. 한국의 옥공예가 완전히 끊겼다가 1968년도에 춘천옥이 발견



되고 1974년도에 한국제이드라는 공장이 설립되면서 그때부터 복원이 됐어요. 장종훈 선생님이 거기서 배웠어요. 그런 분들이 다 지정이 됐어요. 그 가치를 인정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원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복원해놓은 성과니까 굉장히 귀하잖아요.

또 하나 전승체계를 세 분이 다 긍정적으로 봤더라고요. 그런데 세 분 다 우려하시는 점이 전승체계의 불안정성이죠. 그것은 사실 또 뒤집어 보면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게 잘 되는 분야를 지정하자는 게 원래의 뜻이 아니잖아요. 잘 안 되는 분야를 지정해서 어떻게든 제도적인 온상 안에 넣어서 인공호흡이라도 시켜서 생명을 연장해가면서 뭔가 추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공격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분을 지정한다. 그러면 희망이 있으면 꿈꾸게 되는 사람들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종목도 없고 뭐도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아무도 배우지 않으려고 하다가 만약에 지정이 된다. 그러면 그중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뜻을 세워서 이수자부터 해서 전승교육사까지. 그래서 나중에 후계구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000 위원

저는 비전문가인데요. 지금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혼동이 온 게 이것은 종목 지정이지 보유자 지정이 아니거든요.

○ 000 위원

그러니까 보유자가 될 사람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얘기를,

○ 000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싶은 것은 백동장이 도대체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면 국가는 백동장을 안 하고 왜 굳이 백동연죽장을 했을까. 그런 것이 먼저 듣고 싶은 것이죠. 그다음에 가치가 있어서 공모했을 때 이분이 들어왔다면 지금 하신 말씀은 그때 가서 하실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판단할 것은 이분에 대한 논의는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빼버리고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서울시에 현재 백동장을 할 만한 전승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이분 말고도. 우리가 하는 것은 개인 검토가 아니라 종목 검토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백동장이 현재 서울시에 이분 말고도 어떤 분들이 하는가 하는 기본조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 000 조사위원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청계천에서 하셨던 분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전승 계보가 안 된다면 복원 쪽 측면에서 본다면 복원 작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없어서 이런 복원 작업 자체가 지금 신청하신 분께 복원 작업을 문화재청에서도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백동연죽장이나 김극천 선생님 아니면 박문열 이런 국가무형문화재 선생님께서 하고 계셔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전통공예로 해서 복원을 하시는 분은 지금 찾아봤을 때는 이분만 가지고 계셨습니다.

○ 000 위원

그렇게 중요한데 왜 국가에서 안 하고 서울시에서 백동장을 해야 합니까? 그게 의미가 있다고 하면 국가는 왜 백동장을 안 하고 백동연죽장을 했을까요?

○ 000 조사위원

백동연죽장으로 지정을 했던 것 자체는 지금 백동연죽장이 전라남도 쪽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19세기부터 박창규라는 장인부터 시작해서 계보가 내려오고 있어서 담뱃대 자체로 해서 지정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백동장으로 신청을 안 하고 백동으로 연통을 만드는 연죽장으로 신청하셔서 백동연죽장이 되셨던 것 같고요. 이분도 그렇고 서울시에 들어온 이유는 학술조사로만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이분이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시에 지정을 신청하셨고 검토작업으로 해서 봤을 때는 서울시전에서 동전이라든지 도자전이라든지 연죽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백동과 관련된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되고 유통되고 제작된 흔적들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물품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외국인들이 구입해가는 물품들 자체 또 표트르대제박물관 같은 곳으로 유출되어 나가는 것들도 대부분



한양도성에서 제작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주요 물품이고, 자체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들은 서울시에서 확인이 문헌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000 위원

저는 신청인을 빼고서 백동장의 가치를 설명한다면 기꺼이 동의하겠습니다.

○ 000 위원

예. 백동연죽장이라고 국가문화재를 지정한 이유는 객관적으로 종목을 전체 체계를 두고 차근차근 한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밑에서 특정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민원 신청하듯이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지정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져서 지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계가 엉망진창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특정한 어떤, 예를 들어서 백동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 그러면 연죽도 만들고 등잔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천적인 기술에 대해서 보다 더 서울시가 훨씬 더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연죽장보다는.

○ 000 위원

그런 말씀을 처음부터 했으면 납득이 가는데 괜히 자꾸 신청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

○ 000 위원장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조사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게 됐는데 지금 종목지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000 위원님께서 보존의 희귀성, 우리가 보존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원래 문화재 지정할 때 문화재청에서의 취지는 보존하지 않으면 사라질 위기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보존하자고 해서 문화재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조사하신 선생님, 또 000 선생님이나 000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백동이라고 하는 공예 기술에 대해서는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공통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없으시면 조



사위원 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위원 퇴장)

종목 지정 여부를 묻겠습니다. 종목 지정을 반대한다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종목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백동장 지정 타당성 심의는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000 위원

대신에 기록에서는 나중에 복원 문제만큼은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할 때 하는 게 맞습니다.

○ 000 위원장

두 번째로 색실누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를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십시오.

□ <색실누비>

○ 000 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색실누비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신청이고요. 이 종목은 2007년도에 한 번 인정신청이 들어왔다가 당시에는 심의 결과 부결이 됐고요. 2020년도에 다시 동일인께서 종목지정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 관계전문가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신청 내용을 말씀을 해드리면 전승이력을 보면 색실누비는 35년 전쯤에 신청하신 분의 증조부로부터 쪽 내려와서 담배쌈지 등 주머니류 계열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독창적으로 하셨다고 하시고요. 다만 누비라고 되어 있어서 일반 누비하고 헛갈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문양이 도드라지도록 여러 색실을 사용하고 두 겹의 천 안에 한지 끈이나 면 끈을 넣어서 기하학적으로 입체감이 난다든가 질감이 도톰하게 일어나게 한 다든가 이런 장식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3/K121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13/45



지정신청 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누비와 다른 특수한 형태의 우리나라 전통의 누비기법이고 물건을 넣는 주머니류, 각종 쌈지나 안경집 등의 생활소품에 활용되어 왔다는 점을 들어서 지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분의 검토위원께서 검토를 해 주셨고 세 분 다 공통적으로 지정해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분 중에 000 조사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00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조사위원 입장)

○ 000 조사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중부대학에 재직 중이고 대전에서 무형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나가면서 기존에 왜 신청이 허락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또 저희는 어쨌든 관련해서 이수자 심사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침선과 누비의 경계. 또 옷과 꾸밈의 경계. 그다음에 또 공예로서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했어요. 사실 바늘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침선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 침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누비를 못하시거든요. 또 누비 하시는 분들은 옷을 잘 못 만드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옷을 만드는 것보다는 조선 중·후기의 장식에 필요한 것들. 그런데 그냥 누비하고 이것과의 차이점은 옷에서 하는 누비, 침구에서 하는 누비는 보온성과 기능이 위주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구성이 강조되고 쌈지라는 것이 사실 한복에서 주머니가 없다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용도를 갖고 있는 그러면서 내구성을 갖고 있고 거기에 미적 요소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학에서 교양과목을 하다 보면 전통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MZ세대들이 갖고 있는 전통에 대한 마인드, 또 전통 기능을 전수하고 발전시키고 또 젊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한층 더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일반 누비보다는 훨씬 접근성이 있고 아주 오래 전에 저도 특강할 때 가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일반 누비는 기능을 익히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에도 대상이 제한적인 것에 반해서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고 또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방향성은 전통을 잘 지켜 나가는 것과는 또 조금 다른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항상 문화재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계보, 역사성, 정확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근대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처럼 조선후기의 민간의 기능들에 대한 지정사업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많은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었고 또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 복원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한 개인이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하면 이 색실누비 안에 한지가 들어있다는 것도, 우리가 사실 감히 이것을 뜯어볼 생각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정해주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국외적으로도 전시도 해서 이것이 한국적이라는 성격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루이비통하고 콜라보 작품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본인은 얻은 게 없는 거예요. 루이비통은 얻은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만약에 지정된 상태에서 루이비통하고 협업을 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한국에 전통공예들이 이미 알려졌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이미 많은 교육을 했고 그 밑의 제자들이 이 선생님보다 더 나은 작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것을 활성화한다고 하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지정을 해 주시면 지금부터라도 그 계보가 정확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는 현장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진즉에 지정해주었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와서 많이 배워가기 때문에 또 그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의 전통적인 요소들이 또 유아무야 묻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현장을 다녀온 사람 입장에서는 충실히 그 사람이 여태까지 작업을 해왔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인성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애정도 있었고 또 의무감도 갖고 있었고 또 협회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정확한 명분이 없이 협회를 운영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주는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지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 000 위원장

사전검토 결과 보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더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3/K121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15/45



○ 000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유물 중에는 제일 높은 시대의 유물이 언제쯤부터 시작된 게 있나요?

○ 000 조사위원

지금 박물관이라든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의 연대가 명확하게 기록된 것은 없어요. 다만 누각동 싹지라는 어떤 문헌,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해도 그 시대에 그런 공예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 000 위원

제일 높은 게 조선시대예요?

○ 000 조사위원

네. 제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선시대 때 제일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중후기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왕실의 문화냐 아니냐를 비교해봤을 때 싹지라는 것을 왕실에서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왕도 싹지에서 뭘 꺼내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민화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싹지도 서민들에서부터 어느 정도 계급까지는 널리 사용한 것이 아닌가 보고. 그다음에 누각동이라는, 서울에서 지정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명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 이것을 지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누비 장르인데 사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종류의 폭을 몰라서 그러거든요. 색실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누비의 장르가 여러 가지가 지정된 게 있습니까?

○ 000 위원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종목 지정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부분은 다 빼고 일단은 누비라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누비라는 것은 원래 나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스님들 옷을 기우는 거예요. 누비다는 말이 이리 저리 꿰매는 거예요. 이게 터지면 뭇가 덧붙여서 꿰매서 두툼하게 하는 데서 누비가 시작이 됐어요. 말하자면 갑옷 같은 것도 누벼서 솜을 두툼하게 옷에 붙이려면 바늘이 가야 하거든요. 거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미적으로도 승화가 되면서 옷을 고르게 누볐더니 옷이 굉장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소빙기에, 특히 16~7세기가 되면 누비옷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리고 그게 또 굉장히 고가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남자들은 옷에 굉장히 뭇가 장식을 하는 것은 선비로서 겸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바른 옷만 입는데 비해서 공예미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장신구에 포함되었어요. 작은 것에 아주 집중해서 장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 한 일면이 이런 싹지류에서 보이는데, 차이점은 뭐냐? 충전재의 차이예요. 누비라는 것은 대부분 솜을 넣어서 고르게 펴서 아주 기본적으로 홈질(Running Stitch)하는 거예요. 홈질로 해서 그 직물에 솜을 고정시키는 것이고 이 색실누비는 입체감을 강하게 주는 건데 한지를 돌돌 꼬아서 두꺼운 실을 넣고 한지 들어가고 바느질을 하는데 이 바느질이 홈질(Running Stitch)이 아니라 박음질(Back Stitch)이에요. 완벽하게 한 번 뒤로 돌아가서 막아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싹지라는 것은 매일 넣었다 뺐다 하면 이게 훼손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출토 유물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 누비는 굉장히 오래 남아 있어요. 가죽처럼 굉장히 질겨요. 그런 효과도 줄뿐더러 또 다른 점은 옷을 만드는 이런 누비는 그 옷 색깔에 실 색깔을 맞춰요. 그래서 표시가 안 나게 하면서 볼륨감만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예적이고 색깔도 넣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보색 관계를 많이 써요. 파란색이면 빨간색을 쓴다든지 다양한 색깔을 쓰게 되고 아주 작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조그만 걸로 따라 하기도 편하고 체험하기도 편하고 보기에 아름답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전통문화지만 확산하기 좋은 공예 기술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차별점이 있다고 봅니다.

○ 000 위원

그 전에 지정된 게 있는지요?

○ 000 위원

누비 관련해서 서울시는 없는데 국가지정에는 누비장이 있어요.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 000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정하면 누비장과 색실누비장하고 장르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 000 위원

누비는 옷에 관련된 누비장이고요. 이 색실누비가 만약 지정이 되면 공예 파트로 분류가 됩니다.

○ 000 위원

그 범위를 뭘로 보는 거예요?

○ 000 팀장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누비는 지정된 게 없습니다.

○ 000 위원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 000 위원

하나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기초조사 하실 때 김운선 선생님 말고 그 제자 분이 2018년에 대통령상을 받으셨잖아요. 그 관계는 혹시 조사가 됐나요? 지금 종목지정 단계라 아직 거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지만.

○ 000 조사위원

이번에 갔을 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고 이 종목 지정의 타당성, 역사성 또 계보, 지금 교육 현황 그런 것들 위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 000 위원

만약에 종목 지정을 하게 된다면 명칭도 정확하게 혼동 없이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색실누비라는 명칭이 조사하신 바에 따르면, 또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 1980년대 후반에 유희경 선생님이 명칭을 몸소 지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조금 더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명칭으로 가려면 뭔가 근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말보다 더 좀, 만약에 지정됐을 때 이 기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명칭이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충분히 그것을 반영한다고 보십니까?

○ 000 조사위원

네. 저는 아마도 유희경 교수님께서 복식 쪽으로 거장이라면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마 가장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색실누비라는 명칭을 쓰신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침선에서의 누비는 사실 그 옷감의 실을 빼서 그것으로 누비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색실이라는 것, 누비는 게 보이는 게 효과이고 그게 다른 점이고 그래서 아마 색실누비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전시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작품성을 보면 사실 일반 옷을 누비는 것은 약간 투박한 면이 있다고 하면 입체화 하고 곡선화 하는 것은 훨씬 이 색실누비 기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보면, 또 더 좋은 명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주시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 000 위원

혹시 의뢰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것을 만들 때 동원됐던 장인들의 장색을 살펴보셔서 어떤 분야의 장인들이 동원되었는지를 보시면 그냥 누비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침선 하는 분들이 와서 특별한 장르로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면 그랬을 수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렇다면,

○ 000 위원

참 안타깝게도 이 색실누비는 궁중유물에서 출발을 했다면 반드시 그런 기록에 있었을 텐데 이것은 민간에서 공예에 집중을 해서 만들어진 민간의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명칭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한 게 ‘누비와 어떤 차별점이 있냐? 솜을 둔다. 종이심을 넣는다. 그러면 종이심을 넣는 게 가장 큰 차이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솜도 충전재이고 어떻게 보면 종이도 충전재이다. 그렇다고 해서 솜누비장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명칭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심누비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어요. 제일 큰 차이가 그건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볼까 하다가 마음을 바꾼 게 일반사람들한테 와 닿는 명칭도 굉장히 중요하다. 색실누



비랑 심누비랑 했을 때 어차피 이것은 고증된 명칭이 아니라고 보면 그 명칭을 정할 때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명칭도 좋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무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 000 위원

그런데 명칭의 역사성 차원에서 본다면 누비라는 부분은 근거가 명확히 나오는데 색실이라는 부분은 지금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980년대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신다. 이러면 지금 인간문화재라는 명칭을 예용혜 선생님이 쓰신 것을 그대로 쓰는 부분인데 그런 명칭은 역사성에 대해서 좀 더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 지정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 000 조사위원

제가 또 하나 첨언하자면 누비는 전체적으로 솜을 넣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입체감을 주는 거지만 색실누비는 그 누비는 선에만 한지 꼬임의 노역개 같은 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간 부분은 편편해요. 그래서 그 기법 자체도 차이가 있고 누비에 관한 박사논문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이 한지를 이용한 누비기법에 대한 것은 그 영역에서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차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조사위원 퇴장)

그러면 000 위원님께서 오시지 않고 의견을 별도로 주셨는데 000 위원님께서 한 번 낭독해주세요.

○ 000 위원

색실누비 종목은 기존의 침선, 자수, 누비 종목과는 완전히 다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민속박물관에 소장된 색실누비 담배쌈지나 안경집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자수나 누비처럼 보이나, 색실누비는 겉감과 안감 사이에



한지를 꼬아서 만든 지승을 넣어서 입체감을 살리고, 담배쌈지 같은 경우 습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여 우리 민속생활용품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바느질과 관련이 있으나, 침선, 자수, 지승이라는 다양한 분야가 함께 어우러져서 기물이 만들어집니다. 2022년 ‘한복생활’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하여 왔으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 온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이다.’ 라고 하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K-한류의 붐으로 한국의 전통문화가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색실누비는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공예기술입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에서 색실누비와 콜라보레이션하여 루이비통 트렁크를 7개 주문 제작하여 특별한 고객들에게만 판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에서 색실누비의 공예적 아름다움과 활용도를 더 인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 000 위원장

예. 그러면 000 위원님과 000 위원님이 해당되는 분야인데 아까 000 위원님께서 누비만 설명하셨고 이 종목 지정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가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 000 위원

저는 일반적으로 옷에 누비는 것은 직선의 누비라고 하면 이것은 기하학적 무늬를 연출해내는 누비거든요. 아까 그 화보를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장르를 ‘옷칠장’ 하면 옷칠장 안에 나전도 있고 끊음질도 있고 이렇게 큰 타이틀 안에 세부적으로 나눠놓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누비 안에 하나의 소속인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다 따로 따로 장르를 하실 건가요?

○ 000 위원

여기 회의 자료를 보게 되면 16페이지에 2020년 10월 7일에 저희가 모여서 색실누비가 들어왔을 때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해보자. 그랬는데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검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검토가



없다가 갑자기 2023년 9월에 관계전문가 조사를 갖는가 의문이 들어요. 그때 분명히 저희가 꽤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최소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 걱정은 최근의 공예종목을 보면 자꾸 종목을 쪼개는 경향이 커요. 색실누비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 누비라는 기능 종목을 나누는 것 중 하나일 가능성은 없을까. 그리고 이름이 그렇게 늦게 붙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굳이 그것을 이름 붙일 필요가 없이 생활문화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검토보다도 2020년 10월 7일에 저희가 내린 결론이 이거였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그동안에 한 번도 살핀 적이 없었어요. 이것을 먼저 우선시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그 작업을 분명 안 했어요.

○ 000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 000 위원장

전문가 조사가 어떻게 해서 파견이 됐죠?

○ 000 주무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 분한테 의뢰를 드렸던 겁니다. 그 세 분이 조사해 주셨던 것이 침선 밑에 대·중·소로 하기에는 분야가 다르다. 그래서 복과 식으로 나누어서 복 분야에는 침선과 누비가 있고 식 분야에는 자수라든지 색실누비라든지 이렇게 다르게 가야 한다. 그래서 2020년 당시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분류할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신 겁니다.

○ 000 위원

그럼 지금은 어느 분류에 들어갑니까?

○ 000 주무관

저희는 따로 이것은 그냥 색실누비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침선과 별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침선은 복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 000 위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서울시에서 누비로 지정된 게 없다면서요.

○ 000 주무관

예. 없습니다.

○ 000 위원

그럼 또 누비가 신청이 들어오면 색실누비하고 그렇게 장르별로 분류를 따로 주실 건가요, 아니면 같은 누비 안에서 색실누비하고 누비를 주실 건가요?

○ 000 주무관

그러니까 이 분류에 의하면 복에 해당되는 게 침선과 누비이기 때문에 누비장이 들어온 것은 복에서 할 수 있고 양쪽으로 병행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저는 걱정이 나중에 어느 전문가가 과거에 다양한 유품을 뽑아서 공통된 이름을 뭔가 붙여서 신청했을 때 우리가 막을 명분이 있는가가 의문이 드는 것이죠.

○ 000 위원장

그것은 그때 가서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 000 위원

아니요. 이건 명분이 되거든요. 이것은 분명 1990년도 말에 만들어진 말 이거든요.

○ 000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조금 산만해요. 색실누비 따로 있고 누비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큰 지붕 아래에 있지 않고 다 따로 나와 있다는 것은 구조상으로는 조금 산만해 보이거든요.

○ 000 위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3/K121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23/45



종목 지정을 하면 국가지정으로 계신 어르신이 한 말씀 하실 겁니다. 그런 염려는 조금 됩니다.

○ 000 위원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데 그것을 따로 따로 계속 그렇게 만들어낼 것이냐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000 위원

가급적이면 시에서도 종목을 세분화시키지 않고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을 지향하시는 것 같은 흐름이고 거기에 저도 동의하는데 이 부분은 같은 누비라는 용어를 쓰지만 계통이 조금 다른 거예요. 기술의 맥락이 조금 달라서 이런 경우까지 옥여넣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분리해서 되는 게 좋지 않을까.

○ 000 위원장

생활보다 공예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복식 가운데 복과 식이 있는데요. 복에 해당하는 것이 누비이고 이 색실 누비는 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갈래가 다른 거죠.

○ 000 위원장

혹시 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000 위원

그런데 갈래가 다르다고 해도... 또 한 가지 걱정은 저는 솔직한 얘기로 김윤선이라는 분이 애를 써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굳이... 그런 걱정이 많이 들어요. 이 사람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사람이에요.

○ 000 위원

그런데 이분이 제일 오래 하셨는데 이분의 제자분이 2018년에 전승공예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종목지정이 되고 나면



보유자 신청을 했을 때 아마 갈등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염려가 됩니다.

○ 000 위원장

그것은 그다음 문제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미리 염려할 것은 아닌데, 그때 가서 심사해서 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2020년도에 이 위원회에서 대·중·소분류 기준을 세웠는데 난데없이 소분류가 하나 들어온 거죠.

○ 000 위원

그런데 이것은 색실누비를 복이라고 봤을 때는 분류를 무조건 해야 하는 건데 이것을 식으로 결정해버리면 분류의 체계는 사라지는 겁니다.

○ 000 위원장

하나의 예술공예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여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침선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했거든요.

○ 000 위원

역사성, 계보 등 전통성에 문제가 있다고 2020년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것은 해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역사성은 사실 말씀드렸지만 이게 궁중의 문화도 아니고 민간의 문화에서 공예가 독특하게 발전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계보 문제는 물론 사람에게 의해서 계보는 되게 어렵고 아까 백동장 역시 그런 경우의 한 예인데 이것은 유물로써 그 계보를 말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유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분해해서 이분이 하셨다는 내용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죠.

○ 000 위원장

원칙을 크게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를테면 나중에 이것을 포괄하는 누비장이 들어왔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미 지정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는 누비와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가는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 000 위원

그런데 여기를 지정하는 순간 통합은 안 되는 거죠. 별개로 가야 하는 겁니다.

○ 000 위원

누비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공예적인 이 색실누비 형태의 작업은 전혀 안 하십니다.

○ 000 위원

명칭이 끝에 누비가 붙어 있어서 자꾸 연결해서 이해하시는데 별개입니다.

○ 000 위원

근데 만일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인 브랜드에서 협업을 했다고 그럴 때 씬지에 하지는 않고 다 의상에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굳이 우리가 그것을 복과 식으로 딱 구분지어서 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상상도 해봐요. 응용하는 게 우리가 규제를 딱 맞춰서 이것은 식에만 쓴다. 보기도 응용해서 쓸 수 있을 만한 기술이랄까 그런 것들을 접목,

○ 000 위원

현대로서는 당연히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죠. 옷에 쓰든 머리에 쓰든 신발에 쓰든 상관없어요.

○ 000 위원

저도 잘은 모르지만 누비라는 용어 때문에 계속 중복되어서 충돌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용어 정리를 해서 이 색실누비의 종목이 발전이 있고 지정해야 하는 타당성이 있다면 복과 식에서 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색실누비에서 '누비'를 빼고 색실공예라고 이름을 붙인다고든 그런 식으로 과감히 이 종목을 전체 서울시에서 지정한 이 문화재의 틀과 상충되지 않게 미래까지 본다면 적극적으로... 색실누비라고 선학께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 용어를 우리가 무



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색실누비만큼, '누비'라는 말을 빼야 저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누비도 어쨌든 침선으로 들어가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하고자 했던 것과는 또 부딪히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러니까 '색실'은 살리고 '누비'는 죽이는 식의 내용을 강조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이 종목을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말씀을 드려봅니다.

○ 000 위원

위원장님, 우선 종목 지정에 대한 가부부터 물으시죠.

○ 000 위원

한 가지 제안인데요. 논란이 많다면 굳이 한 번 정하면 바꾸기 힘들지 않습니까. 000 위원님이 오늘 안 오셨거든요. 이분에게 오늘의 의견을 전달 하셔서 다음 기회에 이분이 심도 있게 검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작명의 문제가 있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부르던 이름이 색실누비인 것 같은데 그렇죠?

○ 000 위원

유물은 조선시대 때부터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누비와는 분명히 다른 공예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구전되어온 명칭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 명칭을 만든 거죠.

○ 000 위원장

누비라는 말이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지금 000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것이 000 위원이 오늘 못 오셔서 의견서를 보내기는 했는데 작명을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이 심의를 다음번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000 위원

하나만 더 여쭙볼게요. 그러면 이것을 신청하신 김윤선이라는 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 000 위원

58년생입니다.

○ 000 위원장

일단 다음 회의로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없으면 그다음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검토

□ <아쟁산조>

○ 000 과장

무형문화재 제39호 아쟁산조에 대해서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신청자를 보시면 박희정 선생님과 이혜리 선생님이 신청인으로 들어왔고요. 오늘 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실 내용은 이분들을 전승교육사 인정할지 조사여부를 하겠냐 말겠냐 하는 부분하고 조사가 결정이 되면 조사위원 추천 부분이 있겠습니다. 조사위원은 다섯 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결정이 되어야 다섯 명을 보내는 것 아니에요?

○ 000 과장

예.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가 확정이 되면 하는 겁니다.

○ 000 위원장

아쟁산조 지난번에 한 번 올라왔던 것 아니었는가요?



○ 000 위원

안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그냥 현재 보유자가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이런 얘기들은 몇 번 있었는데요. 이것은 처음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000 위원께서 같은 음악이니까 한 번 말씀해보세요.

○ 000 위원

개인종목 전승교육사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개인종목에서 전승교육사를 안 두는 방향으로 하되 오히려 복수의 보유자를 인정하는 식으로 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복수로 가지 않는데 전승교육사도 막는다면 조금 답답한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쟁산조는 다른 데에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가 유일하다시피 하고 박종선 선생님이 연로하셔서 아프시다는 소문을 듣고 있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보유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가게 되면 책임이 방기되는 것 같고 국가처럼 전승교육사를 뽑지 않는 방향으로 가시겠다면 열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서울시 입장이 조금 궁금한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런데 신청 내용을 봤더니 박희정 선생님이 따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열어서 보유자를 중복으로 하는 것 자체가 또 이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 어떤 기초가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000 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복수 보유자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전승교육사 문제는 진행하는 게 맞겠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셨던 따님 문제였는데 박희정 선생님과 이혜리 선생님은 두 분 다 박종선 선생님이 추천을 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승교육사로 두 분이 다 지정되거나 한 명이 지정되거나 이것은 사실 문제가 없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 000 위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3/K121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29/45

Email : sokgisa88@daum.net



그러면 전승교육사 지정에 대한 것에 반대 안 하시겠다는 입장이라면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어떠세요?

○ 000 위원

이 아쟁산조가 서울시에서 지정된 기악 중에서는 가장 핫한 종목인데요. 그래서 거의 이수자, 전수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전승교육사 김영길 선생님과 이태백 선생님이 박종선 선생님의 제자로,

○ 000 주무관

이수자입니다. 전승교육사가 없습니다.

○ 000 위원

아, 저희는 전승교육사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김영길 선생님과 이태백 선생님은 지금 아시다시피 아쟁계에서 최고봉이시고 그분의 스승이 바로 박종선 선생님이셔서 저부터도 두 분이 전승교육사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양대산맥인데 이해리 씨는 1996년생이면 29살이죠. 박희정 선생님과 이해리 선생님은 활동영역을 놓고 봤을 때 왜 이렇게 전승교육사가 올라왔는지 일단은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따님이냐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따님이니까 더 잘할 수 있죠. 그리고 박희정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잘하고 있는 분 맞아요.

○ 000 위원

제가 따님이라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 000 위원

아, 맞아요. 알아는 뒀야 하죠.

○ 000 위원

그게 아니라 아버님이 건강이 안 좋으신데 만약에 보유자를 중복 지정을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하게 됐을 경우에는 모양새가 웃기겠다는 느낌이었던 거고요. 따님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 000 위원

그럼 이 전승교육사는 현재도 서울시에서 보유자가 추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영길 선생님과 이태백 선생님은 추천을 받지 못한 거고 박희정 선생님과 이해리 선생님이 받은 거군요.

○ 000 위원장

추천받을 더 좋은 분이 또 있어요?

○ 000 위원

네. 더 좋은 분 정도가 아니라. (웃음)

○ 000 주무관

아마 그분들은 나중에 보유자로 공모하시지 않을까요? 명예보유자로 박종선 선생님이 넘어가시면 저희가 보유자 공모하잖아요. 그러면 박기영 선생님이 아드님이시고 김영길 선생님과 이태백 선생님은 아마 보유자로 공모하지 않을까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교육사는 그 밑의 단계 아니에요?

○ 000 위원

네.

○ 000 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은 보유자로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 000 위원

저는 다른 시각인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면 이해리라는 사람 자료를 읽어보게 되면 이분이 박종선 보유자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2018년에 이수한 다음부



터 공개행사를 한 번도 안 나갔어요. 2020년, 2021년, 2022년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에요.

○ 000 주무관

그때 코로나 때문에 공개행사가 없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올해는 했을 것 아니에요.

○ 000 주무관

올해도 못 했습니다.

○ 000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이것은 제 혼자 생각입니다. 자식을 시키기 위해서 전승교육사는 둘이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수자 하나를 관계없는 사람을 세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신기하게 2018년 이후에 사라져버리고 이력을 보게 되면 이분은 철저히 김영길 선생님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지 박종선 선생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꽤 많은 종목을 보게 되면 자식을 시키기 위해서 이수자, 전승자 일부러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심이 좀 들어서요.

○ 000 위원

그런 의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도 그런 생각이 안 든 것은 아닌데 일단 김영길 선생님과 이태백 선생님 이야기도 당연히 알고 있는 바이지만 전승교육사라는 것은 보유자와 합이 맞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거장들이라서 전승교육사로서 보유자의 보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정말 서울시가 우리 아쟁산조 잘 나가고 있으니깐 보유자를 더 많이 뽑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다 응시를 하실 상황이지 이분들이 이 아래로 전승교육사로 들어올 급도 아니고, 그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전승교육사 역할을 할 것도 아니에요. 지금 너무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승교육사로 뽑아서 전승교육사 역할을 해 준다? 답은 이것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아는 상황인데, 그게



눈에 보이지만 그게 최선의 답인데 뭐 어떡해? 하는 느낌이 들면서 그냥 갑시다. 이렇게 가는 거죠.

○ 000 위원

뻔히 보이면서 가야 하는지.

○ 000 위원장

선의로 해석하면 안 되겠어요?

○ 000 위원

선의로 해석이 절대 안 됩니다. (웃음)

○ 000 위원

박종선 선생님 이쪽은 선의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그림은 읽혀지는데요.

○ 000 위원

예. 선의로 해석이 되고요. 실력으로 나중에 평가하시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000 위원

알겠습니다. 걱정을 한 번 해본 겁니다.

○ 000 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일단 전승교육사 인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어떻게 하든 해야죠.

○ 000 과장

혹시 조사위원 추천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십니까?

한국 컴퓨터 속기 사무소

A23/K121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33/45



○ 000 위원장

000 선생님, 000 선생님, 000 선생님께서 다섯 명을 꼭 만들어내십시오.

(장내 웃음)

○ 000 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소위원회 구성해서 추천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다음 사항으로 가세요.

■ 기능종목 보유자 공모 관련 검토

○ 000 과장

다음은 기능종목 보유자 공모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것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토론해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아람

안녕하세요? 한서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연구원 김아람입니다. 2022년 서울무형문화재 정기조사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용역기관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2년 12월 7일부터 2023년 10월 2일까지 약 10개월간이었습니다.

조사대상은 서울무형문화재 기능 28종목,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등이었습니다. 종목은 28종목이지만 칠장에 옷칠, 칠화, 황칠, 남태칠과 같이 세분화 되어 있는 종목이 있어서 세부종목으로는 35개의 세부종목이었습니다. 35개의 세부종목 중에서 보유자나 전승교육사가 있는 세부종목의 종목별 전형 유지 및 기능 현황, 전승교육사의 현 기량 및 전승실태를 공방에서 기능 실현과 인터뷰로 파악하였고 보유자가 없는 종목은 명예보유자나 이수자들을 전화로 현재 작업하고 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한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는 20명이며 종목으로는 18종목이었습니다. 보유자 부재 기능 종목은 세부 종목으로 총 17종목입니다. 보유자가 없는 종목 중에서 전승교육사가 있는 종목은 침선장 1종목이고 이수자가 있는 종목은 황칠, 공장, 오죽장, 등메장, 옹기장, 송절주, 악기장 총 7종목입니다. 보유자가 없고 명예보유자만 있는 종목은 남태칠, 황칠, 등메장, 삼해주, 송절주, 공장 6종목이고 이중 황칠, 등메장, 공장, 송절주는 이수자가 있는 종목으로 명예보유자와 이수자가 함께 작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남태칠 명예보유자와 삼해주, 은공장, 체장, 악기장 이렇게 총 5종목은 연락이 안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장, 초고장, 관모장은 이수자도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아래의 무속지화장은 종목만 지정된 경우이며 불교지화장점은 단체종목으로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게 됐죠? 우리가 의뢰를 했던가요?

○ 000 주무관

5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조사로 하게 되었습니다.

○ 000 위원장

하나, 하나 논의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 000 과장

저희가 건건에 대한 내용보다도 고민스러운 사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조사내용의 17분야를 보면 보유자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보유자가 안 계신 종목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보유자를 저희가 공모도 해봤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유자를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유자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들이 있을까 하고 검토를 요청해 주십사 안건으로 올린 겁니다.

○ 000 위원장

이게 지금 '적격자 없음'으로 되어 있고 '신청자 없음'으로 되어 있고 '보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유자 해제' 이렇게 와 있는 것은 사실 여기서 통합해서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씩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15번, 16번은 종목 지정은 제 기억으로 2021년 3월에 해서 했수로 2024년이 되면 만4년이 되는데 이것을 공모를 안 했다고요.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전승자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2021년에 지정할 때 바로 공모를 했어야 하는데 시에서 공모절차를 안 밟은 겁니다.

○ 000 과장

불교지화장업은 단체종목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 000 위원장

우리 문화재위원회에서 단체종목을 지정했으면 지정한 것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행을 하지 않고 계속 넘겨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직무유기예요. 깔아뭉개고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추궁할 수도 있고 감사 지정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좋게 말하는 거예요.

○ 000 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5번, 16번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공모를 해보려고요. 만약에 공모를 못할 경우에는 왜 못 했는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전임 과장들도 못 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게 왜 지정을 안 했느냐? 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면 그것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죠. 왜 안 해요?

○ 000 과장

제가 있는 동안 책임지고 공모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할 게 아니고요. 내년 3월에 첫 회의를 하니까 3월



에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 000 과장

예.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공모를 진행하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공모가 진행이 안 된 비하인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

네. 그러시죠.

○ 000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경우도 공모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 건지 그 설명이 없어요.

○ 000 과장

그렇죠. 위에 보시면 ‘적격자 없음’이 심사를 해도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아마 이대로 유추를 해보면 무형문화재가 되시기에는 기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 000 위원

아, 공모를 해서 서류가 들어왔는데 조금 미흡해서 그렇다? 그러면 비고란에 써놔야 알지 지금 상태로는 모르겠는데요. 공모를 했는데 사람이 없는 건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모를 아예 안 해서 없는 건지.

○ 000 위원

아마 적격자가 없음은 심사를 했는데 없는 거고요. 신청자가 없는 것은 신청을 아마도 안 한 겁니다.

○ 000 위원

공모도 다 한 겁니다. 5번부터 13번까지 공모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적격자가 없고 신청자가 없는 겁니다.

○ 000 위원장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그럼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 000 위원

기왕에 이렇게 산학협력단에서 긴 시간 동안 현지 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유자 공모 관련 검토라고 한 페이지로 보니까 내용은 굉장히 무겁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 하나 되게 중요한 논의가 되어야 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 보고서 자체가 너무 한 페이지로 이수자 활동 중, 전승자 없음. 이런 식으로만 나오니까 저 조사내용을 저희들이 조사를 가지 않았으니까 가서 본 듯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받아볼 수는 없을까요?

○ 000 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참고가 돼서 대안이라면 나름대로 아는 범위 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저도 한 말씀 올릴게요. 공모를 할 때 시에서 공고를 어떻게 내시는지,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000 주무관

저희가 이번에 서울잡가를 공모할 때는 서울시보에 낸 다음에 국악신문에 냈습니다. 기능 쪽은 그 전에 서울시보에 낸 것은 알고 있고 다른 언론사에 냈는데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데도 해서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국립무형유산원이라든지 문화재청이나 각 시도에 저희 서울시에서 공모한다고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은공장 하면서 느낀 건데요. 지원자가 두 분밖에 안 계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홍보가 적극적으로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격자 없음’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000 과장

알겠습니다.

○ 000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데 2020년 공모해서 적격자가 없잖아 요. 지금 2024년이 되려고 하는데 없으면 그다음에 공모 안 하는 건가요?

○ 000 과장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공모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것을 자문을 얻으려고 이 안건을 상정한 겁니다.

○ 000 주무관

정기조사 결과를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올해 올릴 공모를 그냥 나가지 않고 이것을 바탕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내년 3월에는 공모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대상은 지금 17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그대로 공모를 하면 될지 아니면 그때 삼해주(소주)는 000 선생님이 하셨겠지만 작년에 이것은 1차만 하고 2차는 아예 할 필요도 없다고 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공장도 올해 조사를 했는데 적격자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내년에 또 해도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000 위원장

그러니까 공모를 한 번 띄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3월에 공모를 한다는 거예요?

○ 000 주무관

공모를 하는 겁니다. 공고를 해서 저희가 신청자를 접수 받아서 내년에 계속적으로 인정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 000 위원장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3/K121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39/45



그러면 일단 한 번만 공모해서 적격자가 없거나 아까 000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공모를 한 번 더 하죠. 일괄적으로 공모를 다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면 어떨까요?

○ 000 위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명예보유자 전환 이렇게 2021년도에 있는 것들은 공모는 다시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전환이 되었으면 빨리 그다음 처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 000 주무관

올해 7월에 전환이 됐습니다.

○ 000 위원

2021년 명예보유자 전환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 000 주무관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아예 전승이 잘 안 되고 있어서 활동하실 분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000 위원

그런 것은 미리 미리 긴급종목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15번, 16번은 저희가 작년에 종목 지정을 했잖아요. 되려 공모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들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 000 주무관

사실 저희가 종목 지정할 때 15번 때문에 16번이 늦춰진 경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5번에 보유자를 할 만한 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승현황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둘이 같이 지정이 됐는데 하나는 없고 하나는 하면 안 되니까 같이 좀 더 이번에 정기조사를 하면서 파악을해보자고 해서 1년이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무속지화장 전승 대상자가 없어서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이번에 또 파악 해서 없으면 또 연기되는 거예요?

○ 000 주무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모를 내보내라고 하시면 저희는 내보내려고 합니다.

○ 000 위원장

제 생각에는 전승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실제로는 있을 수 있으니까 무속지화, 불교지화 동시에 공모를 하세요. 신청이 안 들어오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컷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 000 위원

무속불교 하시는 분이 지금 계십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기초조사 하실 때 혹시 대상 종목에 대해서 종사자라든지 일반 현황 조사가 됐나요? 어떤가요?

○ 김아람

일반 현황 조사는 안 됐고,

○ 000 위원

공모가 되면 소위 전수조사 같은 형태로 저희 망으로 올라와야 하거든요. 그래야 하는데 정보에 공교롭게 노출된 소스가,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다 놓치고 놓치고 하니까 그 시스템은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모기간을 좀 더 길게 하든지 아니면 상시로 해서 1년에 두 차례를 묶어서 하든가.

○ 000 위원

왜냐면 그런 분들이 정보의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지정된 날짜에 딱 넣으라고 했을 때 그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 참 어렵지 않겠어요?

○ 000 위원

몇 가지 단체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예 분야 같은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공예전승협회라는 게 있고요. 명장협회라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노동부에서 하는 기능전승자회라는 게 있어요. 이런 데가 대부분 이와 연관된 사람들이 다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신다든가 해서. 시보는 누가 잘 안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련단체에 보내시면 진짜 많이 올 거예요. 그런 방법도 모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000 주무관

아마 전임자 분들이 관련 기관에도 보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이 만약 이 공모를 내년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면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 000 위원

예. 그러시죠.

○ 000 위원

제가 삼해주(소주) 심사에 갔는데요. 김택상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분의 제자인데 가족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냥 혼자 지원한 거였어요. 그다음에 규정에 맞는 게 하나도 없고 흥대입구 쪽에 아카데미식으로 수업 들으려고 하는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아쉽게도 규정에 맞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심사위원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전원일치 했습니다. 다음이 필요가 없다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왔습니다.

○ 000 위원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등메장은 여기에 '신청자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수자가 2명이 있다고 하는데 등메가 거의 기능이 단절되다시피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시 심사를 한다고 해도 그 분들이 적격자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이랬을 경우에 이런 종목은 몇 번의 공모를 해서 안 되면 횟수 제한을 뒤편 종목 폐지를 한다든가, 어차피 안 될 건데, 초고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외에 옹기장, 체장도 '신청자 없음'인데 없으면 없는 까닭이 있잖아요. 그것을 조사해서 몇 번의 기한을 둔 다음에 없으면 해지를 시키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000 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한계가 있는데 관련 기관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 그 말씀은 하나 귀에 들어오는 게 공모를 한 번 했는데 없다고 해서 그냥 무시할 게 아니고 2회 공문을 보낸다는 건 그것은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신청자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시에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면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공모 횟수를 1회에만 국한하지 말고 한 번 더 공모를 해서 2회로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2회는 적나요? 그러면 과장님, 3번을 하라니까 3번 공문을 내는 것으로 해보시죠.

○ 000 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 담당 과장으로 세 번까지 공모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건 때문에 000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셔서요.

○ 000 시의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요. 안 그래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이 건을 짚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해서 제가 의견을 여쭙보러 왔고요.

제가 첨언해 드리면 은공장도 마찬가지로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쪽 의견이 나오다가 문화본부 소관부서 중에 공예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 은공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연계해서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면 좋지 않겠느냐는 대안도 도출되었습니다.

○ 000 위원

아까 제가 15번, 16번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제가 진관사를 갔어요. 그때 올라온 봉은사나 진관사 등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공모가 된 줄 알았는데 여기는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000 위원



치열하게 했는데 왜 안 했을까요? (웃음)

○ 000 위원

글쎄요. 그래서 저도 아까 깜짝 놀랐고요. 지원을 안 한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진관사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전통방식으로 아주 예쁘게 해서 ‘지화도 이렇게 예술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던 거거든요.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도 안 움직이고 있어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는데 무속지화 때문에 다른 것도 피해를 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 000 위원

뭔가 비하인드가 있겠죠.

○ 000 위원

무속지화장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었어요.

○ 000 위원

다른 비하인드가 있을 겁니다. 저는 무속지화가 할 만하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전혀 신청을 안 하겠대요. 이유가 그거예요.

○ 000 위원장

팀장님, 아까 3월에 공모를 하겠다고 했는데 3월에 공고가 나가면 60일간 공고 기간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러면 3월~4월에 해서 6월 회의 때 이것을 심의할 거예요. 심의해서 조사를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1월에 공고를 내세요. 그래서 1월~2월 60일간 공고를 하고 그 결과 들어온 것을 가지고 3월에 심의할 수 있게. 그게 안 돼요? 공고 내는 것도 어려워요?

○ 000 팀장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3번 하기로 했는데 2020년에 공모하고 안 했거든요. 그러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니까 이것도 3번까지 하려면 3월에 한 번 하고 6월에 한 번하고 9월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000 주무관

저희는 팀을 2년에 한 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 보고사항 해 주시죠.

■ 2023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시험 평가 결과 보고

○ 000 팀장

나머지는 보고사항이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평가 결과이고요. 올해 이수심사를 총 14종목, 64명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아래 보이시는 대로 51명에게 이수증을 발급했습니다.

■ 2023년 하반기 전수장학생 선정·해지 보고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장학생 선정·해지 사항이 있었고요. 올해 하반기 해지 내용은 4종목에 6명. 해지 사유는 지급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아니면 본인 요청에 의해서 6명이 해지되었고요. 또 6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종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삼현육각, 서울석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2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3/K1219/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45/45

